

2021학년도 수시모집 실기(면접)고사 기출문제

모집단위	종 목		문 제
디자인학부 무대미술전공 디지털콘텐츠 전공	발상과표현		(문제은행 08번) 문명과 바퀴를 발상·표현하시오.
	기초디자인		<p>(문제은행 14번, 27번)</p> <p>인쇄물로 제공된 사물들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화면에 자유롭게 구성·디자인하시오.</p> <p>**주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된 사물 이외의 형상은 표현하지 말 것. 2. 제공된 사물의 색 이외는 사용하지 말 것. 3. 제공된 사물을 여러 시점에서 표현하는 것은 무방함. 4. 재료는 자유롭게 선택할 것. 5. 화지방향은 가로로만 할 것.
영화영상전공 (연기)	실기 고사 [지정 연기]	소재	<p>“이 연탄 한 장 마저 들고 나와서 우리들의 방은 지금쯤 차갑게 얼어 붙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건 우리들의 한 끼 밥이고, 미역은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생일을 위해 먹으려고 놔두었던 겁니다. 그걸 우리는 갖고 나왔어요. 우리도 남을 도와주면서 기쁜 마음을 맛보려고 말이죠. 그런데 이걸 아무한테도 주질 못했어요. 왜 크리스마스 같은 걸 만들어 우리 같은 사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까? 산타클로스가 있다구요? 양말을 걸어두고 기도하면 들어준다구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해서 외롭고 가난한 사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까? 말해보세요! 예수 생일은 우리 같은 사람을 더욱 비참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겁니까? 네?”</p>
영화영상전공 (연기)	실기 고사 [지정 연기]	소재	<p>OO야, 저기 보이는 산봉우리 있지? 보이지? 여기서 소리지르면 저기까지 들릴까? 한 번 가봐! 내가 여기서 소리 지를테니까 들리면 대답해! (맞은편에 OO가 서자)</p> <p>OO야! 들려~~~어? (안 들리는 것이 확인된다.) OO야! 들려~~~어? (큰소리로)</p> <p>OO야! (작은 소리로) 미안해... 나 정말...나 정말..... 아무래도 극복할 수 없나봐. (큰 소리로) OO야! ...미안해!(작은 소리로) 미안해...(큰소리로) OO야!(작은소리로)</p> <p>나도 어쩔 수 없나봐! 난...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큰 소리로) 그래애! 나 어쩔 수 없어! 나...극복이 안돼! 극복할 수 없어! (흐느끼며) 미안해..... 정말 미안해.....</p>
		소재	<p>살인 아닙니다. 정당방위로 무죄판결 났습니다.</p> <p>.....</p> <p>누구라도 죽임 법한 상황이었습니다.</p> <p>상무님이라도 죽였고, 저라도 죽였습니다.</p> <p>그래서 법이 그 아이한테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데,</p> <p>왜, 왜 이 자리에서 이세안씨가 또 판결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p> <p>이런 일을 당하지 말라고,</p> <p>전과조회도 잡히지 않게, 법이 어떻게든 그 아이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데,</p> <p>왜 그 보호망까지 뚫어가면서, 한 인간의 과거를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시는 겁니까?</p> <p>내가 내 과거를 잊고 싶어하는만큼, 다른 사람의 과거도 잊어주려고 하는게 인간아닙니까?</p> <p>.....</p> <p>회사는 기계가 다니는 곳입니까? 인간이 다니는 곳입니다.</p>

모집단위	종 목		문 제
영화영상전공 (연기)	실기 고사 [지정 연기]	소재	<p>경찰이 불쾌해 한다..? 경찰이 불쾌해하면 안 되지, 응. 어 내가 잘못했네!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아 우리 공수사관 증말 대단하시네!</p> <p>아! 대한민국 일개 검사가 증말 경찰을 아주 불쾌하게 할 뻔했어!! 아주 내가! 큰 실수를 할 뻔 했구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p> <p>경찰들이 불쾌해 할 수 있으니까 일 다 하지 마 씨! 경찰들 불쾌한 일들 하지 마! 경찰한테 허락받고 일해! 내 얘기 똑바로 들어! 어?</p> <p>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상대방 기분 맞춰주다 보면 우리가 일을 못한다고. 알았어요?</p>
연극전공 (연기)	실기 고사 [화술]	소재	<p>난 네가 그러는 게 더 싫어. 식구들 위해서 꿈이고 미래도 다 버린 사람처럼 구는 네가 너무 꼴 보기 싫단 말이야. 내가 왜, 왜 너 볼 때마다 죄지은 사람처럼 힘들어야 되는데? 힘들어. 그게 더 힘들어 네가 그런 내 마음을 알기나 해? 아무것도 못하고 받기만 하는 사람 입장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 제발 날 좀 내버려 둬. 집 나오는 날 대문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그때 평생 흘릴 눈물 다 쏟아 버렸어. 그때 전부 다 지웠다고. 내게는 이제 고향도, 가족도, 아무 것도 없어. 난 너처럼 살기 싫어, 난 내 미래를 너처럼 바보같이 내동댕이 치지 않을거야. 꼭 찾을거야. 난 내 꿈을 꼭 찾고야 말겠어.</p>
		소재	<p>난 마을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내려다 보고 있는 걸 참 좋아해여. 밤이 깊었는데 왜 저렇게 늦도록 불을 켜놓고 있나 싶어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보기도 하죠. 어떤 집은 파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집은 화를 앓고 있기 때문에, 또는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들 환하게 켜놓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보죠, 그런 생각을 하다가는 눈길을 돌려 보는거예요. 우람한 나무들이 마치 병풍처럼 드리워져 있는 뜨락 말이예요.</p>
		소재	<p>난 <햄릿> 이라는 연극에서 무덤 파는 사람을 연기한 적이 있었어. ‘오! 오피리어! 나를 기억해 주오!’ 근데 애써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중요한 건 재능이야. 내가 아는 어떤 배우는 연습 때 자기 대사나 겨우 읽을 수 있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었거든. 근데 막상 공연 때만 되면 훌륭한 연기로 관객의 박수갈채를 받는 거야. 극장이 아주 떠나갈 지경이었지. 결국 배우에게 필요한 건 재능이야. 그런데 그 재능이란 건 말이야, 자신을 믿는 거지. 그래서 난 아직 포기 안했어.</p>
		소재	<p>피부의 비결을 잘 씻고 잠을 많이 자는 것, 그렇게 믿었다가 아주 큰 코를 다치죠. 아무리 씻어도 모공에 박혀있는 묵은 때는 나오지 않아요. 중금속으로 오염된 때!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잠을 많이 자는 것도 그래요. 얼굴에서 피지가 마구 생성되면서 그 지방성분이 묵은 때와 결합하여 모공을 꽉 막아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무슨 대체 에너지도 아니고... 얼굴에서 기름이 유전처럼 마구 분출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오염된 얼굴을 말끔히 정화시켜드려야겠다... 그런 막중한 사명감을 갖게 된 거죠.</p>

모집단위	종 목		문 제
연극전공 (연기)	실기 고사 [화술]	소재	<p>내가 너 같은 인간을 처음 겪는 줄 알아? 너 같은 부류는 수상한 구석이 있지. 날 봐! 날 보란 말이야!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당당하게 네 짓이라고 인정해. 용감하게 말하라고.</p> <p>그걸 인정할 수 없다면 넌 절대 성공 못 해.</p> <p>한낱 사기꾼이니까.</p> <p>당신은 적어도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는 알잖아.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는 없겠지만, 새 출발 할 마음만 있다면 방법은 잘 알려야. 제발 원하는 인생을 살아. 당신 자신을 인정하고 당신의 인생을 살라고. 영원히 자신을 속이면서 살 수는 없어. 그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해.</p>
		소재	<p>이 사람들 좀 봐, 당신들 정신 나갔어? 정체가 도대체 뭐예요? 최소한의分別력도, 정직함도 없이 이 한밤중에 부랑아마냥 지껄이고 있다니! 우리 아가씨 집을 무슨 술집으로 만들 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큰 목소리로,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당신들만 즐겁게 놀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정말 뻔뻔하네. 장소와 사람과 시간에 대한 지각도 없고, 정중한 구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구만! 지금까지는 참아왔지만 아가씨께서도 이 이상의 무질서함은 용납하기 어려우시답니다.</p>
사진영상 미디어전공	사진 촬영 실기	소재	<p>소품을 활용하여 형태미와, 조형미가 강조된 사진을 촬영하시오.</p>
디지털만화 영상전공	만화 능력 테스트	소재	<p>코로나 19 시대에 비대면, 비대면 단체 활동에서의 모든 일상이 비대면이다. 철수는 오늘 비대면 동창회 회식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놀라움 반 기대 반에 준비를 한다.</p> <p>과연 비대면 동창회 회식은 어떻게 이루어 질까요?</p> <p>위의 내용으로 네 칸 이상의 칸 만화를 그리시오,</p>